

젖소는 인간에게 우유를 제공해주는 가축이다. 우유 1kg내에는 1.17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칼슘이 젖소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만 후 초유를 통해 유출되는 칼슘에 의해 소위 유열(milk fever)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농가들의 속을 썩히고 있다.

물론 젖소를 기르시는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이러한 칼슘급여의 중요성을 잘인식하고 있으나 필자가 수 많은 양축가와 상담을 하면서 유난히 잘못된 인식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젖소에 급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약제는 소위 젖소 영양제라고 하는 1. V.D.C.2. 인산칼슘제, 3.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제 4. 미네랄(광물질) 5. 소화작용과 정장작용을 겸하는 유산생균제 1. 4. 5번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유산생균영양제 등이 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첫번째는, 약품을 팔고있는 일부 판매상이나 메이커에서 소위 1. 영양제 3. 5. 6번의 약품을 소개하면서 인산칼슘제를 주지않아도 된다고 선전하는 데에 있다. 물론 사양기술이나 지식 경험이 많은 양축가가 들으면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필자가 이런 류의 이야기나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 여기서 자가배합사료로 사료를 자급하는 농장은 제외한다.

두번째 필자의 얘기는 많은 농가가 분만전에 칼슘을 무제한 급여한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이 얘기는 분만 전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분만 후 유열발생이 안될 것이라하고 생각한데서 발상이 된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일부칼슘제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얘기해준 것이라한다.

세번째로 분만 전 건유기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은 이 때 송아지나 어미의 영양상태를 좋게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를 비유기 때보다도 더 많이 주는 농장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양방식은 난산의 위험 뿐만아니라 분만 후 여러가지 대사성 질병을 동시에 수반할 뿐만아니라 산후 식욕부진 및 산욕열로 심한 경우 폐사까지 할 수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유과 같이 몇가지 점을 권장하고 싶다.

1. 분만 전후는 사효내에 유산생균영양제를 사료에 섞어주고
2. 어떠한 영양제를 주더라도 인산칼슘제는 반드시 급여하여야하며
3. 분만전 건유기간에는 칼슘의 급여량을 제한하여 급여한다. 물론 이 급여량 제한에는 학자들간에 여러가지 설(說)이 있으나 다량급여보다 제한소량급여가발생이 적은 것만은 확실하다.
4. 분만 2~8일전 비타민D를 주사한다.
5. 분만전날과 분만다음날 칼슘을 150g 썩 급여한다.
6. 분만말기에 사료를 과급하지 않는다.

한 가지 첨언하면 10년간이상이나 젖소를 키워오면서 유열발생이 거의 없었던 가평의 한 목장 주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분만 1주일 쯤전 칼슘제와 대사촉진제를 주사하면 분만후 유열발생 예방은 물론 유량이나 기타 대사성 질병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베링거 인겔하임 동물약품 학술부-

유열과 칼슘제 급여의 허실